

학문신비주의, 학문세속주의, 그리고 학문비속주의

姜 禎 求
(東國大 社會學科)

북한에서는 생산관리나 경영에서 기술신비주의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모택동도 엘리트들이 이런 신비주의를 무기로 대중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혁명적 대중노선을 견지하였다. 기술신비주의란 어떤 기술 그 자체가 마치 하나의 독자적인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대중이 인식하도록 하여 기술 자체가 대중 위에 자리잡는 전도된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 맑스의 상품물신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신비주의를 견지하는 집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식인·과학자·기술자 등이다. 신비한 기술을 터득하고 개발한 그 기술자·지식인·과학자 등은 일반 대중과는 달리 무슨 신비스런 위력을 가진 것으로 자평하면서 특권의식에 빠지고 대중 위에서 체계적인 특권을 행사한다.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비주의에 스스로 매료되어 엘리트층의 극치를 이루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목격한다. 나는 이것을 편의적으로 학문신비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이 마치 특수 부류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일반인의 접근가능성을 아예 봉쇄하려는 경우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무슨 학문적인 깊이나 독창성도 없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이야기할 때, 학문신비주의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위선적인 모습들을 강의실이나 텔레비전 대담, 발표장 등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한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 한국사회학회에서 ‘학문의 사상과 자유’에 관한 내부 토론이 있었다. 그때 어느 사회학 교수 한 분은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물론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거의 1/4 이상의 단어를 영어로 말했다. 그는 그 잘난 외국유학을 갔다온 지도 10년 가까이 되고,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흔히들 말하는 KS 출신이니 우리말을 제대로 못 배운 것도 아닐테고, 어릴 때 외국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우리말 구사능력이 왜 그리 낮은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물론 그의 문화적 식민주의는 학문적 사대주의와 교묘히 결합되고, 다시 보수·권위주의와 결합하여 학문적 신비주의로 치달았다. 그의 학문이 우리의 민족·민중지향적인 학문 영역에서 토착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국적없는 모습으로 영영 표류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가벼운 연민의 정까지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끼칠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하니,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연민의 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단호히 문제화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그 이후 나는 동료들이 불필요한 외래어를 남발하는 경우 습관적으로 제동을 거는 버릇이 생겼다. '60년대의 텔레비전 토론 등을 들어보면 도대체 자신이 제대로 소화시키지도 못한 낯선 의국어 개념들만 섞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권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한 설익은 학문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오늘날도 좀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의 과오가 일반 대중에게 엄청난 해악을 저지른 것을 나는 기차 속에서 우연히 목격했다. 제철기업에 종사하는 40대의 고급기술자가 동석한 여자손님에게 이야기할 때 거의 1/3 가량의 단어가 영어 나부랭이였다는 점이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나는 그 다음부터 강의시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쓰지 않기로 작심했다. 도대체 이 땅이 뉘 땅인데!

또다른 류의 학문신비주의를 살펴보겠다. 특히 외국유학을 갔다 온, 그 중에서도 미국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의 이야기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경험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학문분야도 이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과학에 이르러 계량적인 분석방법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계량적 분석방법의 기초인 조사방법이나 통계가 대학원의 전공필수로 자리잡아 숫자에 약한 많은 미국 대학원생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방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 유학생의 경우, 대체로 서양 친구들보다는 숫자나 통계가 조금 나은 편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조사방법 매몰적인 경향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들은 좀 복잡하고 최신인 듯한 조사기법은 무조건 숭배하려는 신비주의에 빠져 여기 저기에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우스꽝스런 결과를 자아내고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한다. 가끔씩 학회발표장에 가보면 정작 발표주제에 다가서기도 전에 통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개나 설명에 시간을 거의 소모해 버리고 본론은 채 접하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간다. 이런 류의 발표는 본주제보다는 통계나 조사기법에 더 비중을 두는 주제를 전도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학문 접근 태도는 사회현상의 유의미한 분석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십중팔구이다. 조사방법을 위한 조사방법의 연구라면 몰라도 궁극적으로 사회현상의 설명과 분석을 지향한다면 이런 류의 통계, 조사방법 신비주의 또는 일종의 기술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학문신비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자. 학문신비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인명이라면 아마 '상아탑'이란 것일 터이다. 학문은 또는 학자는 속세와 떨어진 고고한 높은 곳에 앉아 초월한 입지에서 진리를 연마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인명이다. 이는 학문을 마치 수도승의 철학적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세상사와 유리된 학자가 학문의 주제를 탁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현실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추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문은 대개가 학문 자체를 위한 학문으로 지식인 집단의 특권을 꾸미는 장식물로 진락하기 십상이다. 여기에 범인들은 감히 접하지 못하는 '학문의 신비화'라는 장막이 쳐진다.

신비화한 학문은 일상생활의 애환과 고통에 시달리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백성이나 민중의 절규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 아니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속적인 것, 그래서 하찮은 것들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세상을 보다 진보적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 공헌하지 못하는 학문이 더 이상 필요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저 높은 곳으로부터 학문을 낮은 데로 임하도록 하여 일반 민중의 삶과 직결된 살아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상을 기

조하는 사명을 띤 학문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설론 의미든 본질적 의미든 학문신비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자기 교정력을 발휘해 세속적인 곳으로 지향하는 ‘학문의 세속화’를 당면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학문의 세속화가 변종이 되다 보면 ‘학문의 비속화’를 가져온다. 얼마 전 한국정치학회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학문 비속화의 전형적인 보기이다. 물론 이 문제는 정치학회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그 유형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비이성적이기에 우리 학문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 것 같다. 한국정치학회가 학술행사만 했다면 으레 최고급 일류호텔에서, 또 걸핏하면 소위 여·야당 및 국회의장 등이 만찬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 정기학회의 경우도 가끔씩 일류호텔에서, 그것도 회원 참석자의 숙박비를 학회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더더구나 민자당 전국구 후보자로 내정된 박아무개 교수는 여당대표에게 노골적으로 전국구 국회의원 자리를 몇 개 할애해 달라는 식으로 정치학회를 마치 국회의원 따내기 정치복마전으로 만들려는 듯 비속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속한 무리들이 교수다, 국회의원이다, 무슨 박사다, 민자당 무슨 자문위원이다 하면서 대중에게 무슨 신비스런 존재로 보이길 원하고 있다. 물론 대중은 신비스럽게 보기는커녕 어용, 사이비, 해바라기성, 알파한 ××× 등으로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을 터이다.

도대체 학술발표회나 정기학회를 호텔에서 여는 것을 주최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료 숙박까지 제공하면 더욱더 유능한 회장으로 여기며, 정기학회장을 마치 정치복마전으로 인식하는 박사님·석사님들의 사고는 신문에서 이야기하듯 상식의 선도 되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부류는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러한 소수가 학회를 좌지우지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부류의 집단이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신비주의자의 대명사이다. 묘하게도 학문신비주의와 학문비속주의는 서로 공존하면서 때와 장소에 따라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이중적인 얼굴모습을 띤다.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는 자기의 권위와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학문이란 것이 고고하며 신비스러운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 역시 보통사람이 아닌 저 높은 곳의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안달이다. 또다른 한편, 정부나 여당의 고위층 등 소위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들 앞에서는 조금 전의 학문신비주의는 온데 간데 없고 온갖 교언영색의 모습으로 자기와 학문을 비속화하기에 급급하다. 주로 이러한 집단들이 표준이 되어 지식인들을 전통적으로 기회주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는가 보다.

아마 신비주의와 비속주의가 서로 혼재하여 이 색깔 저 색깔로 수시로 표변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의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런 신비주의와 복음주의 씨앗이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뿌려졌지만, 재생산에서 재생산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한국교회에 거의 내면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많은 젊고 개혁적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세속화를 부르짖고 낮은 데로 임하려고 순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문계에도 한국정치학회처럼 신비화·비속화로 뒤범벅된 모습을 청산하여 저 낮은 데로 임하기 위하여 수많은 젊은 학도들이 호텔이나 정치복마전을 향하지 않고 노동현장, 빈민현장, 정신대 문제 현장, 통일운동 현장 등을 누비면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 대중과 학문의 결합, 일상생활과 학문과의 결합 등을 꾀하고 있다. 이들의 삶과 직결된 생동적인 학문에 대한 정열과 보통사람에 대한 애정이 결합하여 맺어질 값진 열매들이 학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비주의와 비속주의를 말끔히 씻어낼 날도 머지 않았다고 글쓴이는 확신한다. 이들 학문의 순교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독자들에게 부탁드린다. ■